2월 윈터
커리큘럼

						2/1 (일)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2 (월) 독서 인문예술 나의 언어로 재진술하라	2/3 (화) 문학 고전소설 장면단위로 요약하라	2/4 (수) 독서 사회문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라	2/5 (목) 문학 현대소설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라	2/6 (금) 독서 과학기술 원리와 실험을 연결하라	2/7 (토)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8 (일)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9 (월) 문학 고전시가 대주제를 파악하라	2/10 (화) 독서 인문예술 나의 언어로 재진술하라	2/11 (수) 문학 현대시가 상황과 반응을 파악하라	2/12 (목) 독서 사회문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라	2/13 (금) 문학 고전소설 장면단위로 요약하라	2/14 (토)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15 (일)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16 (월) 독서 과학기술 원리와 실험을 연결하라	2/17 (화) 문학 현대소설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라	2/18 (수) 독서 인문예술 나의 언어로 재진술하라	2/19 (목) 문학 고전시가 대주제를 파악하라	2/20 (금) 독서 사회문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라	2/21 (토)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22 (일)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2/23 (월) 문학 현대시가 상황과 반응을 파악하라	2/24 (화) 독서 과학기술 원리와 실험을 연결하라	2/25 (수) 문학 고전소설 장면단위로 요약하라	2/26 (목) 독서 인문예술 나의 언어로 재진술하라	2/27 (금) 문학 현대소설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라	2/28 (토) 자율학습 평일 복습 + 시크릿 자료	



1일 1지문 1코칭
RUN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부법

1일 1지문 · 1코칭

국어 마라톤은 단순히 하루 한 지문을 읽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국어 강사로 살아오며 쌓아온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현장에서 다듬어진 실전 감각과 내공이 모두 녹아 있는 공부법입니다.

독해력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반복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하루의 루틴이 쌓여 결국 성적으로 증명되는 구조,
그 과정은 이미 수천 명의 학습 결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 마라톤을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분명히 체감하는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의 옆에서,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마라톤 국어 드림

마라톤 과제 제출법 가이드 [한 장 요약]

1. 마라톤 웹에서 업로드 된 과제 다운로드 [패드 풀이 혹은 인쇄 풀이 중 선택]
- www.marathonstyduy.com 으로 접속하여 부여받은 핀번호로 클래스에 입장 후 과제를 다운로드합니다.
- pdf 다운 받아 패드에 넣어 풀어도 되고, 인쇄하셔서 풀이하셔도 됩니다.
- 매일밤 24시에 업로드됩니다. [업로드 시간 변경되는 경우 저희가 사전 공지 해 드립니다.]
- 휴대폰, 패드,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기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삼성 브라우저의 호환이 일부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정 접속 현상 발생 시 크롬 사용을 권장합니다.

2. 과제 풀이 완료 [평균 10분~15분]
- 과제를 풀 때에는 "순수 풀이 시간"을 측정합니다.
- 시간을 재되 제한시간 안에 풀지 못했다고 해서 찍지는 않습니다.
- 시간을 재는 이유는 나의 풀이시간을 스스로 파악하기 위함 + 집중력 발휘, 실전 감각 함양을 위함입니다.

3. 채점 + 오답정리 + 지문 장악 [평균 15~30분]
- 오답 정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3단 오답정리법"을 진행합니다.
- 지문 장악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문학, 비문학 지문을 깊게 이해하려 노력하며 오답정리합니다.
- 종현샘의 영상은 단순 문제 풀이가 아니라, 학생이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학습했다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실전 피드백 코칭입니다.
- 스스로 지문과 문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잘 선행될수록, 이후 코칭 영상의 이해도와 학습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3. 코칭 영상 시청 [평균 15분]
- 영상 속 필기는 필기노트에 있으므로 눈과 귀로만 즐겁게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 나의 풀이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하며 필기보다는 사고하며 이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 영상 속에는 종현샘의 퀴즈가 숨어있습니다. 답변 기억하셨다가 제출 시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필기노트 보며 내 과제에 샘 필기 주요 부분만 추가로 적어넣기 [평균 5~10분]
- 영상 시청 후 필기노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필기노트를 펴고 한번 읽으며 종현샘이 이해한 내용을 상기합니다.
- 모든 부분이 아닌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나의 과제집에 옮겨 필기합니다.

5. 마라톤 웹에다가 마감 시간 내에 과제 제출
- 필기노트의 주요부분까지 필기 완료된 나의 과제집을 마감 시간 내 제출합니다.
- 패드 풀이의 경우 화면 캡쳐 방식으로, 인쇄 풀이의 경우 사진 촬영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본인의 풀이가 잘 보이게 촬영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답정리와 코칭 영상 시청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질문을 선생님께 1:1로 합니다.
- 질문이 없는 경우에도 선생님과 가벼운 스몰토크! 안부 인사 및 소통 적극 환영입니다!

5. 다음날 종현샘이 채점 후 주신 피드백을 확인합니다.
- 종현샘이 현장 수업 후 새벽에 주로 채점합니다. 직접 다 읽어보시고 1:1 피드백을 드립니다.
- 평균 익일에 선생님의 피드백이 도착합니다.
- 추가 질문은 다음날 과제 제출 시에 언제든 해주시면 됩니다.

→ 위 1일 1지문 1코칭의 과정을 데일리로 반복하며 루틴과 실력을 만들어 갑니다.

1일 1문장의 힘

별은 바라보는 자에게 빛을 준다.

1일 1지문의 힘

▣ 문학 – 현대시 (31511B)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박남수, 아침이미지1-

(나)

[A]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쳤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D]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쳤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E]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1.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2.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⑤ '세상을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3.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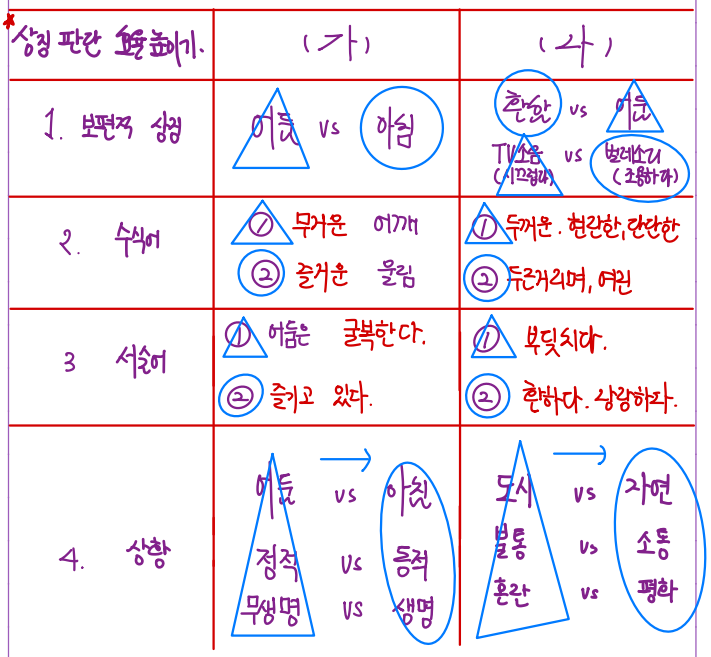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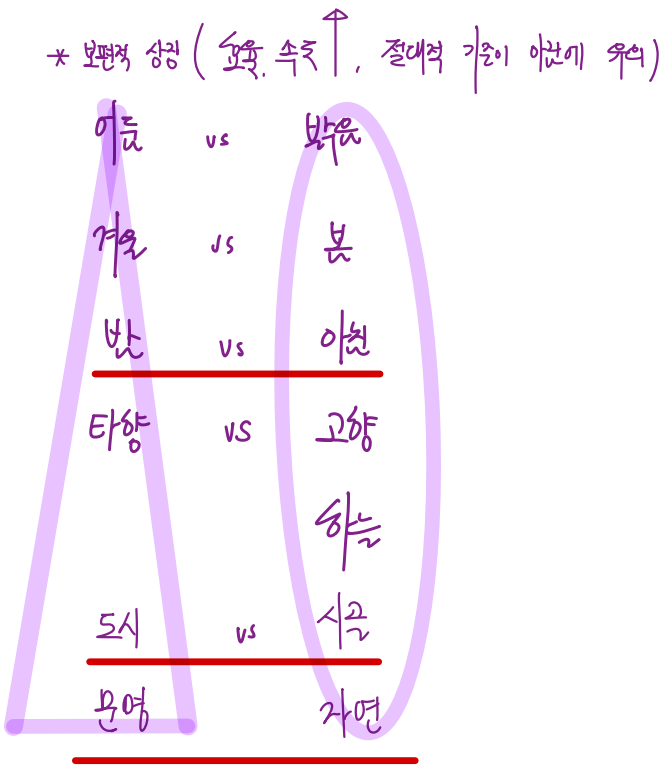
1일 1 지문 장악의 힘

[문풀&오답 후 강의를 보기 전 간단히]

■ 파트 별 지문 장악법 [쌤의 필기노트와 비교해 보며 공부]

- 문학 : "줄거리와 인물 심리" 위주로 자유로이 지문 요약
- 독서 : "문단 별 중심 내용 위주"로 자유로이 지문 요약





1일 1코칭의 힘

[문풀&오답 후에 강의를 본 뒤에 작성]

■ 데일리 퀴즈

-질문? (가)는 아침이 밝아오는 변화의 순간을 마주한 화자가 세계의 생동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인공적 소음을 벗어난 밤의 상황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정서를 드러낸다.

-답변?

정답 및 해설

i현대시 - (가) 박남수, '아침 이미지1' / (나)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품해설 :

(가)는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이 오면서 밝은 세상이 드러나는 과정을 노래 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일상의 섭리를, 모체(母體)인 어둠이 사물을 잉태하고 있다는 독특한 발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태어난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며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여기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 더해지면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아침의 이미지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무거운 어깨를 느끼며 존재하던 물 상들이 빛나는 태양 아래서 생명력을 드러내며 움직이는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 른 세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시인은 다양한 동사를 활용한 역동적인 이미지로 아침이 밝아온다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개벽과도 같은 사건처럼 독특하고 신선하게 형 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

(나)는 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를 뿜어내는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던 화자가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경험을 통해,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에서 벗어나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접하게 된 화자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라 추측하며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연의 평온함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텔레비전의 빛과 소리로 대표되는 인공적인 삶의 환경들과 어둠, 별빛, 풀벌레 소리로 대표되는 자연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화자는 차분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인공적인 삶 속에서 원초적인 쾌락에 몸을 내맡겨 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가까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풀벌레들의 존재를 알리며 현대인들에게도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귀기울여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풀벌레 소리로 인한 삶에 대한 성찰

원포인트 레슨

(가)는 아침이 밝아오는 변화의 순간을 마주한 화자가 세계의 생동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인공적 소음을 벗어난 밤의 상황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정서를 드러낸다.

I.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어둠'은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어둠'은 풀벌레들을 품고 있는 포용력 있는 배경임과 동시에 화자에게 풀벌레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배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가)의 '어둠'은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의 '어둠'은 풀벌레 소리와 화자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많은 물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어둠이 물상들을 품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면서 비로소 어둠을 접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날이 밝아오는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 머무는 상태의 지속이 드러나고 있다. ④ (가)에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여러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하던 방 안이 벌레 소리들로 환해지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만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점점 밝아오는 태양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만물들의 이미지와 어울려 아침의 이미지를 더욱 밝고 경쾌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물들의 몸부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물상의 움직임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긍정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통해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온갖 물상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아침의 모습을 낙천적인 분위기로 표현한 것이다.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물상들의 움직임을 '혼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감을 지니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텔레비전을 끄고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는 그 인식을 확대하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가 자신 때문에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화자는 그동안 그 소리들이 벽에 부딪쳐 돌아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비로소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 오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자신의 눈과 귀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들은 이런 벽에 부딪쳐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풀벌레 소리를 통해 환함을 느끼게 된 화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는 인식으로까지 생각을 확대하고 있다. ④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벽을 만들었고 그 벽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간과 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⑤ 화자는 별빛과 풀벌레 소리를 포용하고 있는 밤공기를 허파로 들이쉰다는 표현을 통해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